

의안번호	제 호
의결 연월일	연월일 (제 회)

글로벌 바이오 캠퍼스 구축사업 중복
유치를 위한 대정부 건의안

제안자	건설환경소방위원장
제안연월일	년 월 일

글로벌 바이오 캠퍼스 구축사업 중복 유치를 위한 대정부 건의안

의안
번호

제안연월일:

제안자: 건설환경소방위원장

주 문

- 보건복지부 공모사업으로 추진 중인 세계보건기구(WHO) 글로벌 바이오 인력양성 허브 교육 전담 기관인 「글로벌 바이오 캠퍼스 구축 사업」의 중복(오송) 유치를 건의하고자 함.

제안이유

- 세계보건기구(WHO)는 지난해 2월 대한민국을 글로벌 바이오 인력양성 허브로 단독 선정
- 중복은 건물면적 최소 요건인 3,300㎡를 훌쩍 넘는 11,225㎡를 제안하였으며, 최근 준공된 건물로 활용 가능성이 매우 높음
- 중복은 바이오의약품 인력양성에 대한 노하우가 풍부하고, 송도, 화순, 안동, 서울 등 기존 바이오클러스터와 접근성·연계성이 가장 뛰어나 글로벌 바이오 캠퍼스 구축의 최적지임
- 따라서, 충청북도의회 의원 모두는 글로벌 바이오 캠퍼스 구축사업 중복 유치를 강력히 건의함.

- 보내는 곳: 대통령(비서실장), 국회의장, 국회보건복지위원장, 국무총리, 보건복지부장관

붙임 건의안 1부.

글로벌 바이오 캠퍼스 구축사업 충북 유치를 위한 대정부 건의안

글로벌 바이오 캠퍼스 구축사업은 국내·외 학생 연 2,000명 이상을 글로벌 바이오 인력으로 양성하기 위한 것으로, 충북 오송 바이오 클러스터를 전 세계에 알릴 수 있는 중대한 기회이자, 국내기업의 해외시장 진출과 해외기업 충북 유치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는 사업입니다.

세계보건기구(WHO)는 지난해 2월 대한민국을 글로벌 바이오 인력양성 허브로 단독 선정하였고, 보건복지부는 이를 실천하기 위해 전국 광역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글로벌 바이오 캠퍼스 구축 공모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캠퍼스 부지 결정 공고는 6월 말 예정으로 충북은 지난해부터 본 공모사업 유치를 위해 철저한 사전 준비를 해왔습니다.

공모 평가항목에서 가장 중요한 건물 면적은 최소 요건인 3,300㎡를 훌쩍 넘는 11,225㎡를 제안하였고, 면적 대부분은 최근 준공된 교육연구시설로 활용 가능성 또한 매우 높습니다.

또한, 충북(오송)은 바이오의약품 인력양성에 대한 노하우가 전국에서 가장 풍부하다고 자부하며, 송도, 화순, 안동, 서울 등 기존 바이오 클러스터와 지리적 접근성과 연계성이 가장 뛰어나, 글로벌 바이오 캠퍼스 구축의 최적지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번 공모사업 평가 기준에는 국가 균형 발전에 대한 배려가 어디에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충청북도는 다시 한번 용기를 내어 도전하고자 합니다.

충청권 메가시티를 공동 추진하고 있는 대전광역시, QS 아시아 대학평가 1위인 KAIST,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대응제약, GC녹십자, 프레스티지바이오로지스가 힘을 모아 최선을 다해 준비했고 무엇보다도 유치를 희망하는 충북도민의 염원이 매우 뜨겁기 때문입니다.

이에, 충청북도의회 의원 모두는 글로벌 바이오 캠퍼스 유치에 행정적·재정적으로 적극 지원할 것을 약속함과 동시에, 글로벌 바이오 캠퍼스 구축사업 충북 유치를 강력히 건의드립니다.

2023. 6. .

충청북도의회 의원 일동